

# 11년만에 문 열린 옛 적십자병원... “대동정신의 상징”

### 5·18 45주년, 한달여간 한시개방

#### ‘소년이 온다’ 오월 창작물 배경 연휴기간 전국 관람인파 ‘발길’ ‘멈춘 공간, 새로운 시작’ 전시 “하루빨리 보존돼 시민 곁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5·18사적지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문이 11년만에 다시 열렸다. 시민들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던 45년 전의 긴박한 순간을 떠올리며, 피와 연대로 이어진 대동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겼다.

6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전번우로 415)’에는 개방 시간에 맞춰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안내 동선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복도 의자와 진료실이 세월을 머금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건물 외벽 곳곳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녹슨 창살과 낡은 실외기가 오랜 시간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번 개방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병원 내부를 한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1965년 건립된 해당 병원은 1996년 서남학원 재단에 인수돼 ‘서남대병원’으로 운영되다, 경영 악화로 2014년 문을 닫았다. 이후 공개 매각이 추진되자 사적지 훼손 우려가 제기됐고, 광주시가 2020년 병원 터를 매입했다. 이번 개방에 따라 11년 만에 시민들의 곁으로 잠시 돌아온 셈이다.

안태근(65)씨는 “5월을 맞아 5·18사적



광주시민들이 6일 5월을 맞아 개방된 광주 동구 5·18사적지 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찾아 80년 당시 현형과 대동정신이 실현된 응급실과 영안실 등의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지를 돌아보게 됐다. 세월이 바랜 건물의 모습을 보니 민주화 열망이 거셌던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른다”며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큰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 개방이 중요하고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1980년 5월, 부상자가 속출하던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여 현형에 나서면서 많은 목숨을 살려낸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이곳을 소설 ‘소년이 온다’ 속에서 인간 존엄과 참상의 기억을 품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려냈고,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와 그의 취재를 도운 김사복 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의 배경으로도 등장한 바 있다.

관련 창작물의 흥행, 12·3비상계엄 사태 등과 맞물려 5·18민주화운동과 옛 광주적십자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날 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연일 수백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온 백경화(50)씨는 “학교 수업에서 ‘택시 운전사’를 본 초등학생 자녀가 5·18민주화운동 견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적지를 돌아보게 됐다”며 “1980년대를 기억하는 입장에서 당시 광주의 모습을 가까이서 들여다 보게 된 기분이다.

‘대동정신’과 연대의 의미가 담긴 장소를 방문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양에서 온 남미은(45)씨도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연휴를 맞아 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에 방문했다”며 “세월의 흔적이 담긴 병원의 모습과 그날의 기록물을 보니, 목숨이 오가던 45년 전 절박한 순간들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불의에 맞서 싸웠던 오월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진료가 이뤄진 2013년의 모습으로 남은 건물 곳곳에는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생명 나눔’과 부상자 치료 모습 등이 담긴 사진·영상물이 전시됐다. 건물 노후화 등 안전상의 문제로 개방 및 전시는 1층과 뒷마당에서만 이뤄지면서, 실제 현형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3층은 출입이 제한됐다.

전시를 기획한 지역 창작그룹 ‘MOIZ’ 관계자는 관람객들에게 상세한 작품 해설을 제공했고, 오후부터는 ‘오월안내해설가’들이 상주하며 병원이 지닌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했다.

이준호 MOIZ 대표는 “수년 전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적십자병원의 모습’ 등을 주제로 한 공연과 관객참여형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왔다”며 “삶과 죽음, 연대의 역사가 깃든 이곳이 시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꾸려 본격적인 활용 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부 관람객들은 장기간 방치된 5·18 주요 사적지의 모습에 강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용수(66)씨는 “사회적 연대를 상징하는 적십자병원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남아있어 감회가 새롭다”면서도 “건물 내외부가 방치된 창고의 모습과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아 있는 이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건물도 더욱 낡아갈 것이다. 하루빨리 제대로 보존돼 시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되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어린이날 연휴 광주·전남서 안전사고 잇따라 “교실을 넘어 세계로”... 5·18 전국·세계화 박차

### 완도 숙박업소서 가스누출 사고 함평·장성 고속도로 다중추돌 등

어린이날 연휴 기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숙박업소 가스 누출부터 고속도로 다중추돌까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6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7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월계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쌍암동의 한 아파트의 승강기가 멈춰서면서, 입주민 2명이 갇혔으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전기 공급은 1초만에 정상화 되면서,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당국은 전봇대 전선에 까치가 접촉해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56분께 전라남도 완도 완도읍의 한 리조트 4층에서 일산화탄소(CO)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물 내부의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1개 객실에 있던 투숙객 69명과 숙소 관리자 1명을 모두 대피시켰다.

이 사고로 성인 9명, 어린이·청소년 5명 등 투숙객 총 14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당일 오후 상태가 호전돼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관계 당국은 보일러실 천장 마감 불량으로 배출되지 못한 일산화탄소가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요일인 4일에는 고속도로에서 두 건의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4시 52분께 함평 학교면 무안·광주고속도로 상행선 동함평IC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서 1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여파로 도로 한쪽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현장 수습은 약 5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11분께 장성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JC 부근에서도 버스과 SUV 등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해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각 사고가 정체 구간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연휴 첫날이던 3일 오후 1시8분께 여수 소라면의 한 한우 축사에서 불이 나 47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가축 피해는 없었지만 축사 일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같은 날 오전 5시9분께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1층 난간에 할머니가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난간에 상반신이 걸려 있던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A씨는 다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관계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준명 기자

###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5·18홍보단 탐방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에 나서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둔 가운데 5·18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사적지 탐방버스 운영부터 청소년 홍보단, 교육자료 보급 등 ‘세계속 5·18’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일 시교육청은 전일빌딩 245다목적강당에서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세’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홍보단 ‘푸른세’는 청소년이 주체가 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참여 학생들은 5·18 사적지 탐방과 5·18 역사 왜곡 바로잡기 실천 활동, 카드뉴스·포스터·영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들 중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5·18 세계화 프로그램(대만)’ 국제교류 참여기회와 광주광역시교육감 표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혜택 등을 제공한다.

오는 8월에는 국외 청소년을 초청해서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교류하는 ‘찾아오는 5·18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10월에는 대만에서 광주의 5·18과 대만의 2·28을 연결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시교육청의 학생 국제교류프로그램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통해 전세계 곳곳에 5·18을 전하는 활동도 펼친다.

전국화를 위한 활동도 준비돼 있다. 지난 4월 5·18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새롭게 자체 개발한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PPT, 활동지 등)를 전국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 자료는 민주인권교육센터 누리집(5·18교육게시판)을 통해 전국 교사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또 타 지역 학생의 5·18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온라인을 통해 5·18알리는 ‘오월아 놀자’도 진행한다.

광주학생들에 대한 5·18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2일 각화중 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총 7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

예술공연’을 운영한다. 이번 공연에는 온 챔버오케스트라가 참여해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를 선보인다.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5·18의 역사와 정신을 예술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또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를 ‘5·18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계기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7일에는 이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5·18 학생 희생자 모교를 찾아 합동 참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주간 동안에는 10일에는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17일은 ‘민주평화대행진’, 24일은 ‘5·18 청소년 문화제-소년이 온다’ 등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이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학생들이 학교와 사적지,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배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5·18 교육을 추진해 5·18 정신이 전국을 넘어 세계 속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jnilbo.com